

“한국병 치유… 공정사회 만들어야”

손학규 신년 기자회견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당시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까지는 증세 없이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율을 축소하며 과세 부담성을 제고하면서 증세 수요를 최소화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평화를 통해 남북이 협력하고 함께 번영하는 것은 경제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며 “6·15와 10·4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할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더 큰 민주당, 더 큰 진보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야권통합과 관련해선 “진보진영은 이제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을 찾고 서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한신하고 민주 진보진영의 연대와 통합에 앞장서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정권교체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 대표는 회견에서 정부 비판에 치중했던 기존 야당 대표의 신년 회견과 달리 2012년 정권교체와 수권정당 도약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 새로운 야당 지도자의 면모를 각인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연설문 준비 과정에서 현 정권의 반대·규탄에 방점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손 대표는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한 쪽으로 가자”고 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회견이 지난 연말 장외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 대

선행보에 첫 발을 내디디는 신호탄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 “그것은 외피를 쓰려는 것”이라면서 “살아온 삶이 있고 누적돼온 실적과 업적이 있는데, 아무리 뭘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올해는 내년의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룩할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한 해”라며 “한국병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및 신년 기자회견과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 양극화, 빈부격차, 반칙·특권사회를 ‘한국병’으로 진단한 뒤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새로운 사회의 첫 번째 과제는 사회구조의 변화, 한마디로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비정규직 불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칙 없는 공정 사회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새로운 사회의 두 번째 목표는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 추구”라면서 “교육과 노동, 복지가 융합하는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같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인데, SOC 투자를 조정하면 수요자 위주의 재정으로 재편할 수 있다”면서

“한국판 주커버그 나올 환경 만들것”

이대통령 라디오 연설 “G20세대 대한민국 주역”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56차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을 통해 “스무 살 때 페이스 북을 창업,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기업으로 기운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공무원도 되면서 안전한 직업을 택할 수도 있지만, 21세기에는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세계를 무대로 더 넓은 기회에 도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1인 창조 기업을 위해 사무 공간과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벤처 인프라와 미디어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경험한 젊은 세대를 일컬어 명랑한 ‘G20 세대’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G20 세대 젊은이들이 세계 국가 대학민국의 주역”이라고 강조한 뒤 “G20 세대가 가진 꿈과 희망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G20 세대를 “긍정의 힘으로 도전하며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길 줄 안다”며 “공정한 경쟁으로 열정과 노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간다”, “당장 저지가 어려워도 인내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극복해낸다”, “세계의 문제도 나의 문제로 끌어안을 수 있는 성숙한 세계시민” 등으로 정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 성장·3% 물가안정”

이대통령, 올 30개 핵심 국정과제 선정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올해 신년특별연설 후속 조치와 관련, ‘5% 성장, 3% 물가안정’과 ‘100세 시대 종합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30개 국정 과제를 선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법정부적으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과제는 ▲안보(‘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3개) ▲경제(‘5% 성장, 3% 물가안정’ 등 8개), ▲삶의 질 선진화(‘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 마련’ 등 5개) ▲세계국가와 FTA(‘개발협력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6개) ▲G20 세대 히망 프로젝트(‘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8개)다.

김 대변인은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법정부적으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과제는 ▲안보(‘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3개) ▲경제(‘5% 성장, 3% 물가안정’ 등 8개), ▲삶의 질 선진화(‘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 마련’ 등 5개) ▲세계국가와 FTA(‘개발협력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6개) ▲G20 세대 히망 프로젝트(‘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8개)다.

김 대변인은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법정부적으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과제는 ▲안보(‘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3개) ▲경제(‘5% 성장, 3% 물가안정’ 등 8개), ▲삶의 질 선진화(‘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 마련’ 등 5개) ▲세계국가와 FTA(‘개발협력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6개) ▲G20 세대 히망 프로젝트(‘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8개)다.

김 대변인은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법정부적으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과제는 ▲안보(‘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3개) ▲경제(‘5% 성장, 3% 물가안정’ 등 8개), ▲삶의 질 선진화(‘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 마련’ 등 5개) ▲세계국가와 FTA(‘개발협력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6개) ▲G20 세대 히망 프로젝트(‘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8개)다.

김 대변인은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법정부적으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과제는 ▲안보(‘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3개) ▲경제(‘5% 성장, 3% 물가안정’ 등 8개), ▲삶의 질 선진화(‘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 마련’ 등 5개) ▲세계국가와 FTA(‘개발협력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6개) ▲G20 세대 히망 프로젝트(‘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8개)다.

김 대변인은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법정부적으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과제는 ▲안보(‘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3개) ▲경제(‘5% 성장, 3% 물가안정’ 등 8개), ▲삶의 질 선진화(‘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 마련’ 등 5개) ▲세계국가와 FTA(‘개발협력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6개) ▲G20 세대 히망 프로젝트(‘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8개)다.

김 대변인은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법정부적으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과제는 ▲안보(‘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3개) ▲경제(‘5% 성장, 3% 물가안정’ 등 8개), ▲삶의 질 선진화(‘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 마련’ 등 5개) ▲세계국가와 FTA(‘개발협력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6개) ▲G20 세대 히망 프로젝트(‘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8개)다.

김 대변인은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법정부적으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과제는 ▲안보(‘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3개) ▲경제(‘5% 성장, 3% 물가안정’ 등 8개), ▲삶의 질 선진화(‘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 마련’ 등 5개) ▲세계국가와 FTA(‘개발협력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6개) ▲G20 세대 히망 프로젝트(‘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8개)다.

김 대변인은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법정부적으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과제는 ▲안보(‘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3개) ▲경제(‘5% 성장, 3% 물가안정’ 등 8개), ▲삶의 질 선진화(‘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 마련’ 등 5개) ▲세계국가와 FTA(‘개발협력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6개) ▲G20 세대 히망 프로젝트(‘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8개)다.

김 대변인은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법정부적으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과제는 ▲안보(‘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3개) ▲경제(‘5% 성장, 3% 물가안정’ 등 8개), ▲삶의 질 선진화(‘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 마련’ 등 5개) ▲세계국가와 FTA(‘개발협력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6개) ▲G20 세대 히망 프로젝트(‘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8개)다.

김 대변인은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법정부적으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과제는 ▲안보(‘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3개) ▲경제(‘5% 성장, 3% 물가안정’ 등 8개), ▲삶의 질 선진화(‘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 마련’ 등 5개) ▲세계국가와 FTA(‘개발협력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6개) ▲G20 세대 히망 프로젝트(‘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8개)다.

김 대변인은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민경제대책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법정부적으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과제는 ▲안보(‘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3개) ▲경제(‘5% 성장, 3% 물가안정’ 등 8개), ▲삶의 질 선진화(‘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 마련’ 등 5개) ▲세계국가와 FTA(‘개발협력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6개) ▲G20 세대 히망 프로젝트(‘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8개)다.